

화순군, 명품 딸기 본격 출하 ‘고품질·고당도’로 인기몰이

전국서 가장 먼저 선진 농업기술 실천·GAP인증 통해 안전 농산물 공급



화순군이 '화순 명품 딸기'가 지난 달 20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내년 5월 까지 본격적으로 출하한다고 밝혔다. 화순에서는 전국 딸기 재배단지 중 가장 앞서 선진 농업기술을 실천하고 있고, GAP인증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매일 3t 이상 생산해 광주·부산 도매시장 60%, 광주·목포 이마트 30%, 로컬푸드·직거래 10% 비율로 출하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군은 고품질 딸기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2018년 도비를 확보해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해 딸기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우량묘를 보급했다. 또한, 딸기 꽃눈분화 검경과 기술지원을 통해 적기 정식 안내 후 안정적인 수확을 위한 정밀 관리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화순에서는 현재 33농가가 15.6ha

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 농가 중 25농가가 14.7ha에서 고설재배(수경재배)를 하고 있으며 10a(300평)당 32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설재배 농가 중 63%인 14농가(7ha)는 스마트 팜을 도입해 정밀 환경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실천하고 있다.

김성조 화순딸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고설재배 등을 통해 광합성 효율을 높여 딸기 당도와 생산성을 향상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전 회원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획득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명품 딸기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명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며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승철 기자

구례정착 보금자리 입주자 모집

8개소 오는 17일까지...사용료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

구례군은 '구례정착 보금자리 사업'으로 2020년 14개소 중 조성 완료된 8개소에 오는 17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2019 하반기'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공모로 선정된 '구례정

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0~2021년 2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와 해당 마을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구례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

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4개소 중 조성 완료된 8개소(문척면 1, 토지면 1, 광의면 2, 산등면 4)는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 1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마을과 협의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입주 기간 중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5명 모집...이달 18일까지

나주시는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제7기 위원 구성계획은 일반시민

대상 28명,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26명,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기관 추천자 21명 등 총 75명으로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지원방법은 시청 누리집('정보공

개-예산살림-주민참여예산제도-시민위원회공모)에서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bhw3003@korea.kr) 또는 우편(나주시 시청길22 기획예산실 예산팀 ☎339-8246)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어서와, 곡성 멜론마을은 처음이지”

곡성군 주요 관광지 연계로 곡성멜론 테마관광 시동



곡성군이 곡성멜론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멜론마을 조성 1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멜론마을은 곡성멜론 대표 주산지인 곡성을 대평2구 금예마을에 조성했다. 멜론마을은 현재 추진 중인 곡성멜론 복합체험센터와 연계

해 방문객들에게 곡성멜론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생산농가와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곡성멜론 홍보의 전초기지도 활용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멜론마을은 멜론조형 파고라 설치, 멜론마을 분리수거장 정비 및 디자인 펜스 설치,

마을회관 사인계시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곡성멜론을 형상화한 우편함과 명패를 집 앞에 부착해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에서는 곡성역, 삼진강기차마을, 곡성멜론복합체험센터, 멜론마을, 곡성멜론 게스트하우스를 하나의 체험관광 코스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단 담당자는 "단순한 수확 체험에서 벗어나 곡성멜론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멜론마을을 조성했다. 향후 2차 조성을 통해 삼진강기차마을과 함께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성군, 전자형 지역화폐 발행 세금 투명성 높인다

카드·모바일 상품권 내년 초 출시

장성군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내년부터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출시한다. 고령층 등 기존 상품권 이용이 익숙한 주민들을 위해 종이 상품권 발행도 이어간다.

군은 올해 275억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당초 계획은 70억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205억원 분을 추가했다. 또,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운영했던 10% 할인 행사도 확대 추진해 민생 경제에 활기를 더했다.

경제적인 혜택과 지역 내 1500여 개 가맹점을 지닌 장성사랑상품권은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지난 11월 모든 발행분의 판매가 완료됐다.

지역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장성군의 집계에 따르면 총 발행액 가운데 245억원의 상품권이 환전된 것으로 나타나, 89%의 환전율을 기록했다.

군은 내년도 장성사랑상품권 발행분 160억원 가운데 절반인 80억원 규모를 전자형(카드, 모바일)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의



이용 증가는 물론, 종이 상품권의 문체점도 거론되는 탈세 등을 방지해 세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폐공사가 대해해 운영하며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지류형(종이) 상품권은 3000원, 5000원, 1만원권 3종으로 제작되며 상·하반기에 걸쳐 총 8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전자형과 지류형 상품권의 규모는 추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법인, 단체는 제한 없음)이며, 총 발행분 중 100억원 규모를 10% 할인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지원한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내년 신규사업 국비예산 1000억 확보

담양군은 지속가능한 자립형 생태도시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립한글박물관 등 내년 국비예산 10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중점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형식 군수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었다.

주요 국비 신규 사업으로는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원 건립사업(총사업비 196억) △대체취수원 개발(111억)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105억) △도시재생 인적사업(83억) △산단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41억) △가사문화센터 건립사업(41억) △가사문화센터 건립사업(41억) △가사문화센터 건립사업(41억) △가사문화센터 건립사업(41억) 등이다.

이중 국립한글박물관문화원은 1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성면 금성리 대나무생태공원 일원 7만㎡ 면적에 정원연구동, 교육실, 온실, 시립포지, 실습장, 전시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자유로이고 품요로운 광주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